

## □ 심사총평

2026년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초이스」 공모는 유아·어린이·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형 참여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우수 단체들이 지원하며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전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획안이 다수 접수되어 사업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만 5세 이상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을 전제로, 일반적 아동 공연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관객 대상에 대한 이해도, 참여 방식의 구체성, 가족 단위 관람에 적합한 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작품은 기획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유아·어린이 관객에 대한 접근 전략이나 참여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는 인형극, 음악극, 연극, 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고른 수준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관객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낸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르적 균형과 사업 취지를 함께 고려한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방향성과 함께 선정된 작품들이 인천 시민들에게 가족이 함께 예술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심사위원

-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 송현민 (월간객석 편집장)
- 신재훈 (극단 작은방 대표)